

**2019신년
메시지**

새 일을 행하라

<이사야 43:14-19>

총회장 **김 종 현 목사** (나니와교회)



2019년 새해를 맞아 재일대한기독교회(이하 KCCJ)에 속한 온 교회와 교우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새 소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재일한국인으로 일본에 살면서 우리를 둘러싼 일본의 정치적 역사적 어두운 현실을 보면서 희망보다 절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며 어떻게 꿈을 꾸고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말기에 이스라엘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에 대한 기대보다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버렸고 돌아보지 않는다고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붙혀 억압과 차별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맡겨두었던 복역의 때가 지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고 구속하여 자유와 해방 생명과 평화를 주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후5:17)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새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새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새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새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KCCJ는 작년 선교 11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120주년 150주년을 향한 새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KCCJ를 세우신 것은 재일 동

포를 비롯하여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새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둘째로, 포로된자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억압과 학대 차별과 멸시 가운데 살도록 두지않으시고 화해와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지난 2017년 4월 마이너리티 선교센터가 설립되어 마이너리티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2.8 독립선언,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 옛날 비폭력 무저항으로 일본 제국주의 총칼앞에서 맨주먹으로 독립을 외쳤던 선열들의 함성과 기도와 울부짖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선열들의 고통과 억압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외치는 음성을 들으시고 일본 제국주의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새 해 하나님은 일본 땅에서 평화와 정의를 외치며 주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에 걸쳐 자유와 해방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70년동안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기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날까지 KCCJ는 조국의 교회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라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남북교회와 재일한국교회 해외동포교회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인 남북통일을 이루어주시어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꿈구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韓日对照聖書販売



各ページ左に韓国語(改革改版)、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A5版変型・1772ページ
●価格:3,0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韓日对照讚頌歌販売



韓国の新讚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对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2019년을 맞이한 신임 선교사들의 메시지

오가키교회 <채은숙 목사>

2018년 6월 17일 위임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백석) 파견 일본선교사로 오가키교회에 부임하여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중부지역 기후현에 위치한 오가키교회는 2018년에 창립 8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가키시는 물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물이 풍부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실을 만들고 섬유를 제조하는 연사, 방직산업이 발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섬유산업의 발달로 한때는 그곳에 종사하던 제일동포들과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섬유공장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이동하면서 한인들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교세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효이 지금도 오가키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이 모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오가키지역의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구원을 이루는 영적 유익은 물론이거니와 마음과 몸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의 나눔이 왕성하게 행해져 육신의 유익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를 바라는 기도와 이웃과의 관계와 소통을 소중하게 쌓아가려 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기억해 주십시오.

키타가미벤엘전도소 <홍응표 목사>

2017년 5월 18일 위임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파견받은 선교사로서 키타가미벤엘전도소에 부임하여 목회를 시작한지가 4년째가 됩니다. 키타가미(北上)는 일본의 동북지방의 이와테현(岩手県)에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어디에나 여러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일본 시골에 결혼해서 살고 있는 한국 여성의 삶이란 참 힘들며 고단하고 죽음의 순간을 오가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됩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그리 마음 편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적은 숫자의 신도들이 힘을 모으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모든 것을 최소한으로 하지 않으면 전도소의 유지는 어렵습니다. 2019년을 춥고 긴 겨울과 눈치우는 일로 시작하지만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히라노교회 <조원철 목사>

2018년 5월 20일 부목사 취임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에서 파견 받아 가족과 함께 일본에 온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높은 벽에 부딪히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여러번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신 곳이 이곳, 일본이기에 어렵고 힘

도요타메구미전도소 <이진용 목사>

2018년 6월 17일 위임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부터 파견받아 도요타메구미전도소에 부임하여 3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도요타 지역은 일본의 중부 아이치현(愛知県)에 있으며 도요타 자동차 회사의 본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부임하여 지금까지 도요타메구미전도소의 신도들과 가족같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인들과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우들과 생활하면서 국적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우들이 저를 신뢰하면서 함께 협력을 해주셔서 이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적은 수의 신도들로 구성된 작은 공동체이지만, 함께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모여서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하면서 이곳 도요타에서 복음의 불꽃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회에서 그리고 주변의 동역 교역자들로 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에도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교회위에 부어주시길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도요타메구미전도소가 되길 바랍니다.

교토히가시아마교회 <이승후 목사>

2018년 6월 17일 위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 파견받아 3년 전에 일본에 입국하여 일본어 공부 및 동경중앙교회에서 협력선교사로 섬기다가 교토히가시아마교회 4대 위임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두 가지의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주님으로부터 교회를 부여받은 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가 되고, 지역 사람들로 부터 신뢰를 얻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교회가 영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일본인 신도, 그리고 한국인 신도가 함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일본인과 한국인 신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중한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토히가시아마교회를 작은교회라고 생각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인 저는 아직 부족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들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내온 것 같습니다.

‘일본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선교 초년병이기에 그간 열심히 ‘수박 겉핥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조금 더 깊고 폭넓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 자신을 잘 목회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본은 영적으로 추운 겨울에 놓여있고, 또 유혹 받을 만한 것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때에 성경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으면 저 자신부터 쉽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2019년도에는 좀 더 깨어서 말씀보고, 기도하는 한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의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해봅니다.

RAIK

佐藤信行고문에게 인권상 KNCC인권센터로부터 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센터는 2018년도 인권상을 제일 한국인문제연구소(RAIK) 고문 사토 노부유키씨에게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2

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에홀에서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이 인권상은 KNCC에 의해 1987년에 설립되어,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특별히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32 번째인 올해는, <오랫동안 제일 한국인의 인권운동에 참여하여 일본에서의 이주자 인권운동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이유로 사토 노부유키씨에게 수여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권력에 의한 성희롱을 고발하고 한국에서의 <Me too>운동의 원동력이 된 여검사 서지현씨와 공동 수상했다.

시상식은 1부 예배에서 한국교회가 증오와 차별에 의해 차별을 받고 고통받는 장애인, 난민, 여성, 성적 소수자와 계속적으로 함께해야 할 것을 확인하고, 제2부 시상식 식에 들어갔다.

시상식에서는 한국의 국가 기관인 한국 국가 인권위원회의 최영에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는데, 최영에 위원장은 그 속에서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는 <조에홀>은 한국 교회의 민주화와 인권활동의 거점이 된 장소이며,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KNCC의 인권상은 1987년 이후 그때 그때의 과제에 걸맞게 선정되어 이번에 수상된 2명도 바로 이 시기에 인권상에 어울리는 분들이다" 고 말했다.

시상식에서는 사토 노부유키씨와 서지현검사에게 인권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 후, 2명의 수상자에 의한 감사의 인사가 있었다. 사토노부유키씨는 "KNCC에 깊은 감사와 앞으로도 일본사회의 화해와 공생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 라는 결의를 표명했다.

또한 이 인권상에 일본인 수상자는 1996년에 한국교회의 민주화 운동 지원에 공로가 있었다 하여 나카지마 마사아키(中嶋

正昭) 일본NCC 총간사에 이어 사토노부유키씨가 2 번째가 된다. (보고: 김성원 장로)

KCC 크리스마스 축하회 이카이노보육원과 공동으로 개최 김성원 KCC관장의 퇴임식도 동시에

지난 12월 3일(월) 오후 6시부터 KCC, 이카이노보육원 크리스마스 축하회가 KCC회관 5층 홀에서 있었다.

KCC간사 신용섭 목사의 사회로 경건히 예배가 시작되고, 안도 신이치목사(일본자유메소디스트 후세겐지오카교회)의 "캔들 포 라이프"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설교는 어린이들을 배려하여 영상을 사용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어진 축하회에서는 훌륭한 요리들이 준비해 누구나 만족스러웠다. 이카이노보육원 직원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게임후에는 38년간에 걸쳐 KCC에서 봉직한 김성원 관장의 퇴임식이 거행되었다. 그 공적을 기린 공로패를 이사장인 정영원 목사가 전달하였고 이카이노보육원 직원들의 화환 증정 후에 김성원 관장으로부터 퇴임인사가 있었다. 크리스마스축하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끝낼 수 있었고, 은혜가 넘치는 크리스마스축하회가 되었다. (보고: 이근수 KCC주임간사)



<총회수첩의 사과와 정정 및 추가>

총회수첩의 주소란에 틀림 및 빠진 분이 있었으므로 사과드리며 정정합니다.

- ◎对馬めぐみ伝道所 住所: 巖原⇒巖原町
- ◎西南地方所属 李惠蘭 住所: 〒813-0004 福岡市東区松香台1-8-13-202
- ◎派遣宣教師 朴憲郁 E-mail: hwpark1@wine.plala.or.jp
- 神戸東部教会: 金吉秀長老、朴永昊長老
- 京都南部教会: 三代川太郎長老 〒569-0824 大阪府高槻市川添2-27-15-302

참가 추기

대만 에큐메니칼 포럼에 참석하여

오사카교회 정시은

대만, 나라 이름만 들었을 때 무엇이 생각날까?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쇼롱포, 타피오카 밀크티, 야시장, 떡거리, 관광지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 2018년11월28일~30일에 대만 신주시(新竹市)의 신주성서학원에서 개최된 <대만 에큐메니칼 포럼> (TEF) 회의에 참가하기 전까지 이야기다.

이 회의는 대만기독교장로교회(PTC)가 주최하여 국제사회에 대만의 고립과 소수민족 문제,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대만의 현상에 대해 약 140명이 각국에서 모여 논의했다. 일본에서는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 일본기독교단, 일본그리스도교회, 그리고 제일대한국교회 대표로는 오카야마교회 김승희 목사, 청년으로 내가 참석 했는데, 회의 전날에 열린 '사전 유스 미팅'에 내가 참가하게 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유럽 국가에서 4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대만의 역사, 원주민, 중국과의 관계, 대만의 아픔과 고통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 교회와 에큐메니칼 조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에큐메니칼 유스 선언> 이라는 형태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TEF 본 회의에서 표명했다. TEF회의의 색 선중 하나에 '대만과 세계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연대로 에큐메

니즘을 펼치자.' 라는 의제가 있었다. 지지몬·아랫카라무 요셉 신부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5:9과 마가복음3:25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를 실현하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다. 하나된 우리 교회가 서로 협력과 연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교회가 분열해 버리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통로가 될 수도 없다" 고 말했다.

대만에서, 세계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우리 세계교회가 함께 연대하고 서로 하나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특집●2·8독립선언 (2)

역사의 단절과 연속

RAIK 고문 사토 노부유키



2.8 독립선언 당시의 YMCA 회관

“우리 민족은 무단진제(武斷專制)를 부정, 불평등의 정치하에서는 결코 그 생존과 발전을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해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해 자유로운 행동을 취하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반드시 자유를 위해 열혈을 쏟을 것이다.”

이 선언은 1919년 2월 8일 도쿄 조선 YMCA에 모인 조선인 유학생에 의한 것이며, 3·1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이것은 종주국의 수도에서 피식민지 민중이 독립을 선언한 것으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획기적인 투쟁이기도 했다.

올해 2월 8일, 우리는 100주년을 맞는다. 내가 2년 전에 동경 한국YMCA 이사회에서 <2·8> 연구회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한국과 한국인에게 <2·8>이 현재로 이어지는 <연속되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일본인에게 그것은 일본의 패전(1945년)을 계기로 <단절된 역사>라고, ... 그 결정적인 공간을 제일 한국인과 일본인과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메꾸어 가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11월까지 日本·在日·海外 연구자를 초빙하여, 총 6회 연구회와 공개 세미나, 미국 애리조나대학에서 선교사 관계 자료의 수집을 거듭해 올해 2월 9일, 동경의 제일본 한국YMCA와 2월15일에는 오사카 KCC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심포지엄의 목적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널리 韓·日·在日の 그리스도인 시민이 2·8 독립 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확인하고 그 현재적 의미와 앞으로의 日·韓 시민사회의 공동 과제를 생각한다.’로 했다.

일본 국가 및 일본인에게 <단절된 역사>를 확인하려고 할 때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압도적인 군사력을 기반으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굴복시키고 종속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정신도 내부에서 부식시키고 속박해 나갔던 것 있었다. 그것을 우리 일본인은 전후(戰後)에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교회와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확인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그것이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잊어버릴 수 없다. 피해자에게 잊을 것을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존엄성을 또다시 깎아내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기억할 수 있다. 즉, 우리가 과거와 가해자(잘못한 자)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기억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진실, 기억, 회개, 정, 용서, 그리고 사랑은 포괄적이며 완전한 화해를 위해서는 중요한 본질적이다.」 (2005년 5월, WCC 세계선교회의)

먼저 미리 판단해 버리는 일과 편견을 버리고 역사를 직시하고, 그 가혹한 역사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소리 없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 그 역사의 한 조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 확인하는 것, — 그것을 在日·韓國·日本 시민 사회의 공동 작업으로서 구체적으로 꾸준히 쌓아 가고자 한다. 그러한 가운데 <진실한 화해>가 보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5:18)



2.8 독립선언의 주역들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女性のための電話相談

DVや子どもの問題など
ひとりで苦しんでいませんか
話すことは解決への第一歩...



セットン

☎ 06-6731-1616

〈電話受付〉第1・3・5週土曜日 正午12時～午後4時
日本語 第1・3・5土曜日 韓国語 第1・3土曜日